

“장기적 발전계획 필요하다”

기획 취재 3개 신설학과에 따른 교육환경 점검

교육부의 내년 각 대학 입학정원 증원조치에 따라 수원캠퍼스에 전과공학과 등 3개학과가 신설되고 기계·화학 계열 30여명이 증원된 것을 포함해 총 1백60명이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어과, 국제관계학과가 아간으로 개설되었으나 강의실공간, 교수 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학과신설 및 증원에 따라 학교측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안 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수도권대학 입학정원동결 조치 이후 8년만에 증원된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이공계 대학 증원에 중점을 둔 점 △인문, 사회계열은 아간학과로 신설 및 증원 △산업 특약학과를 신설했다는 것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9월중 학교측에서 제출한 대학 증과, 증원안을 토대로 하여 교육부에서 심의, 확정하여 지난 22일 발표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캠퍼스정원은 동결되었으나 수원캠퍼스에 산업 특약학과인 전과공학과, 아간인 러시아어과 국제관계학과 등 3개학과가 신설 되었다.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 학교 관련부처는 현재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이 달말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일단 대학평가인정제에서 학교가 상위권에 위치하여, 1백60명이 증원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으나 증원에 따른 학교측의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우려를 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와같은 우려는 교육환경조성의 한 분야인 교수증원, 강의실 공간확보, 교통문제 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기인된 것이며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교수증원, 강의실 공간확보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수 증원

교육환경조성에 대해 학교측이

이상을 강의하지 않으면 전임강사로 강요되는 경우도 있어 신설학과에 신설교수충원은 신중히 검토하여 확정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간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적인 교양강좌는 아간에도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아간학부 생이 부족한 한 사정으로 주간 강좌를 수강하는 것을 원할 경우 허용할 방침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교수충원, 단대 공간등의 문제외에도 러시아어과, 국제관계학과들이 아간으로 신설됨에 따라 수원캠퍼스의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문제도 큰 문제점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은 아간학과 개설에 따른 교통문제는 현상황에 맞게 아간학과와 수업 종료시간을 조정, 아간학부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

강의실 확보·교수충원등 교육여건 개선 선결 과제 입학 정원, 대학 자율에 맡겨야

모색하고 있는 계획을 살펴보면 전과공학과와 같은 경우 전과공학과 교수증에서 전과공학과 교수로 발령하고 내년 교수충원에서 전과공학과에 신임교수를 초빙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러시아어과는 현재 소련 모스크바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와 있는 교수를 러시아어과 교수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제관계학과는 사회과학대학 내에서 관련교수를 발령하는 방안과 서울캠퍼스 정외과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모색중이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각 과별 교수확보에 대해 백영식교무처장은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지만 신입생은 수업의 거의 대부분이 교양 과정이라 내년 한해에 신설학과의 교수충원 필요성은 많은 실정"이라며 “더불어 교수가 일주일에 9시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교육부에서 발표, 확정된 3개학과 신설, 1백60명 증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세운 記者〉

하고 있다.

II. 결론

현재 각 학교에서 신청한 개설학과, 인원에 대해 해당학교와의 협의도 없이 교육부가 단독으로 결정함에 따라 진정 대학에 맞는 과와 적정수준의 증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 증과, 증원 과정은 올해를 시점으로 하여 매년 교육부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증과, 증원 계획을 심의, 확정함에 따라 결정 그 대학특성에 맞는 과와 증원을 할 수 없는 점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증과, 증원은 직접 교육의 당사자인 학과당국에 일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 의견은 80년대초 대학의 방만한 양적팽창을 방지하고 부실한 교육여건을 해결한 전제위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신설된 3개학과와 증원된 과에 대해 학교측은 단기적인 문제점들만을 극복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4년후까지도 내다볼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설...복지회관 합의사항 고찰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한 학원자주화를 제기하면서 서울캠퍼스는 복지회관이 해내 중요사항으로 부각됐다.

서울캠퍼스 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지난 90년 등록금협상시 공식 거론되었으며 다시 올해 하반기 총학생회 사업으로 정제화 되었다.

총학생회는 상반기중 5.6월 정치 투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내복지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까닭으로 지난 10월 가졌던 학과당국과 협의에서 학생들은 자료의 미비, 전문지식부족으로 인해 예정안에서 많은 부분을 학교측에 양보한 결과를 빚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도 부지 및 규모에 대한 막연한 자료만을 갖고 협의에 임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가장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은 학생식당,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6백석규모의 학생식당이 신설되어 그동안 기존 학생회관내 식당이 불과 2백여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던 점을 해소하게 된다.

그러나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양질의 식사제공이다. 지금있는 식당이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식단구성도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공간에 대한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순수 복지건물로서 자리매김이 과제

학교측에서 순수복지공간확보를 위해 총학생회기부금 일부를 거부했듯이 신축되는 복지회관이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공연장, 음악감상실, 편의점, 회의실이 복지회관의 주변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공간들이 학생들의 진정한 편의와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공간의 기능에 따른 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회관의 입찰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합 공배치에 따른 도면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회는 건설부의 계속적인 논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가안을 보면 1층에 식당, 2층 교수식당 겸 휴게실(음악감상실 포함), 3층 편의점, 4층 은행·취업복지·취업정보실·학생생활연구소, 5층공연장(도서관 시청각실 정도의 규모), 회의실 및 전신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식당은 총합 배치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했을때 1천3백50평의 규모가 된다.

아울러 총학생회도 학내복지문제를 학원자주의 관점에서만 보기보다는 일반학생들의 복지증진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김기태 記者〉

공명선거의 파수꾼

학생회 선거 관리 체계를 진단한다

양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선거일정 및 선거 전 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양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이후 활동을 전망해 본다.

서울 캠퍼스

서울 캠퍼스는 지난 24일 학생회관 3층 동통사무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민화기(미교·4)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중앙선거준비위)를 공식 발표했다.

현재 중앙선거준비위는 아직 위원 선정되지 않은 음대, 체대, 치대, 총학생회 각 1인씩을 제외한 8명(각 단대에서 단대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지난 25일 중앙선거준비위는 2차모임을 갖고 기획부, 총무부, 섭외부, 홍보부등의 집행부서를 구성했으며 선거일정, 시행세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반면 총학생회가 선거위가 구성

되기 전 선거일정을 대차보로 공고해 선관위가 대차보를 찍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

선거일정을 구체적인 선거과정인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중선관위 위 의의를 거쳐 발표하려면 오늘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관례상으로 중선관위의 권한을 보면 홍보를 부차, 선거 운동원, 유세날짜등을 엄격하게

수원 캠퍼스

수원캠퍼스는 지난 23일 총대 의회 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단대, 총학, 총여 및 총대위원회 선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선거일정은 11월4일 대의원회 정기총회 및 총대의원회 선거 10월31일~11월5일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

구성은 28일까지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2인씩을 선출하며 총대의원회 중앙상임위원 10인을 합하여 22인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8일까지 단대에 선관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때는 총대의원회 상임위원 10인 집행부 5명과 사회대, 산업대, 외국어대, 체과대 1인씩 선출하며 총대의원장이 1인을 선임 총20명의 중앙선거 관리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황치호 총대의원장은 프랭카드와 대차보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며 또한 이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선거 관리위원단 약 2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임명할 것이라 말하고 공정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 직인이 찍히지 않은 불법대차보 및 프랭카드등의 신고 및 철거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학생 일부에서는 대차보와 프랭카드 수의 제한으로 인해 분위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투표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분위기가 위축은 학생들이 선거에 무관심해 질수도 있다며 총대의원회측의 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행 회칙상 차기선거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총대의원회의 관할하에 있어 총대의원회측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정선거의 의지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엄홍준 記者〉

서울 - 중선관위 구성 및 위상 재정립되야 총대의원회에 대한 학생대중의 관심 필요 - 수원

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규칙을 위반했을때 1차 시정경고, 2차 경고홍보, 3차 등록취소(후보자 박탈) 등을 할 수 있다. 또 위원 재직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당선무효처분을 내릴수 있게 된다.

중선관위 활동에 대해 민화기 중앙선거준비위원장은 “실무자가 없어 집행력이 부족하며, 단대

보통등록 11월4일~16일 총학생회장 후보등록 11월12일 동아리연합회 선거, 11월13일~11월14일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11월18일~11월19일 총학생회장 및 총여학생회장 선거로 발표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치호(체과대체류·4)군을 선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험(試驗)과 시험(猜險)의 상관관계

▼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1위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육자재의 의욕보다 학적 또는 학위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사실도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매년 늘어나는 대학입시 인원과 대입재수생을 보면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한다는 대학의 학외에 당위성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대학조차 그 자체의 학문과 연구의 목적은 배제된채 좋은 성적과 취직등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어릴때부터 엘리트의 또는 재일주의, 경쟁 등의 논리를 주입 받아온 현재 대학 구성원에게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 지난주 중간고사가 치뤄졌다. 연례

행사처럼 초새벽부터 자리가 다 차버리는 도서관, 불타나는 복사실, 강의실 책상위의 땀방울 ‘모범답안’ 낙서 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혹 이런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여들지 않으면 열등생으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대학 본연의 목적이나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서로의 눈치를 봐가며 ‘손쉽게’ 남의 노력을 자기 위해 노트와 예상문제를 베끼고 수업시간보다 몇배의 노력을 투자하는 이러한 대학풍조를 같은 학생으로서 개탄한다면 노트의 지나친 감상에서 나온 한가한 푸념일까. 요즘같은 경쟁사회에서 대학을 또 수하게 졸업해도 ‘취업전선’에서 또 경쟁해야 할 판국에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 ‘시험’이란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두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통상 우리가 쓰는 시험(試驗)이란 의미이고, 또 하나는 시험(猜險)이란 뜻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많고 염려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시험은 후자에 가까울지 모른다. 학생들 사이에 시기심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우리의 교육풍토에 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백년양재를 베끼고 수업시간보다 몇배의 노력을 투자하는 이러한 대학풍조를 같은 학생으로서 개탄한다면 노트의 지나친 감상에서 나온 한가한 푸념일까. 요즘같은 경쟁사회에서 대학을 또 수하게 졸업해도 ‘취업전선’에서 또 경쟁해야 할 판국에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신뢰의 상표-금성



VGA를 선도해 온 금성마יתי 286M—
국내최초 한글 Windows 3.0/마우스 기본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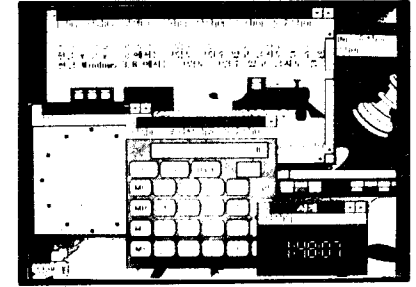
금성 마יתי286M
■본체 ●CPU : 180286(12.5MHz)
●Memory : 1MB(최대4MB)/RAM
●HDD : 40MB
●FDD : 5.25인치/1.2MB
●Video : 수퍼VGA(VGA, EGA, CGA, Hercules MDAX지원)

금성 마יתי386SM
■본체
CPU : 180386(16MHz), 1MB(최대 8MB)/RAM, 40MB HDD, 확장슬롯(5개), 2FD(5.25", 3.5")



이벤트부터 금성마יתי 286M을 구입하시면,
한글 Windows/마우스/MS-DOS 5.0을
기본으로 제공받으십니다.

이번에 내장되는 한글 Windows는
버전 3.0으로, 칼라표현이
더욱 유리하며, 이미 알려진대로
동화그래픽환경 및 윈도우기능을
통하여 컴퓨터 사용의 대중화를
실현하였습니다.



한글 Windows 3.0화면

금성 컴퓨터
금성사

●본사·서울구입 및 물품지 : 서울시 마포구 금성동 275-1 (한강신 마을로)
●전화·전신 : 02-705-3071 ●서울영업부 : 02-705-3336-3344
●지방영업부 : 02-701-1274 ●부산영업부 : 051-87-5967 ●대구영업부 : 053-255-1471 ●충주영업부 : 062-571-8883 ●대전영업부 : 042-253-4231
●울산영업부 : 052-705-3500